

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탄력

진안군, 전북도 공모 선정 15억원 확보... 근로 생활환경 개선·청년인구 유입 기대

진안군은 10일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도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안군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노후화와 기업지원시설,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거주가 가능한 복합시설을 건립해 청년인구 유입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Stay in my Jinan'를 콘셉트를 주제로 생활인프라 시설에 대해 공모했으며 총 44억원(도비 15억, 군비 29억)을 확보해 지난 2010년부터 진안읍 삼한방농공단지 입구에 방치되어 있던 유휴지를 활용해 지상 4층, 연면적 1,500㎡ 규모로 202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설문조사 및 기업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1층에는 기업(화상회의 겸용) 상담실, 기업홍보전시관, Job카페, 편의점 ▲2층에는 식당, 다목적 강당, 공유 오피스 등 근로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더불어 수형형 모델로는 ▲3층에 집안용 목욕 시설 부족과 홍삼스파 미운영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한 찜질방을 겸용한 목욕사우나시



진안군은 10일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도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설 ▲4층에는 5평 규모의 원룸을 최대 14실까지 조성하고 건물 내에 셀프빨래방, 코인노래방 등을 포함시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시설 내 목욕탕, 식당, 카페에서는 농공단지 생산품인 홍삼, 가공식품, 한과, 가공과일, 기타 신제품 등을 판매하며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도 병행할 계획으로 맞은편에 건립될 홍삼집적화단지과 함께 비즈니스형 관광상품으로 진안의 색다른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준성 군수는 "다목적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화된 산단을 활기찬 분위기로 조성하고, 주민·근로자·청년이 함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입주기업협의체와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 설계 공모 등의 절차 등은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인구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취약계층 가구 지원

장수군, 소득 감소했으나 다른 지원 받지 못한 가구 대상

장수군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따른 2019~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 가구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와 고용안정지원금, 비

탐복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봉사자 생계지원 등 정부 4차 지원제도 혜택을 본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원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가 한시생계지원 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을 통해 차액분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포에서 이달 10~28일까지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5월 17일~6월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063-350-2072)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집중호우 피해 하천 재해복구 순항

진안군은 10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황금천 등 70개 하천의 재해복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관내 18개 지방하천과 52개소 소하천 내 제방 유실, 하천침수 시설 파손 등 57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국비 87억원 지방비 15억원 등 모두 102억원을 투입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급변 우기 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난 7일에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관계자들과 사업 공적계획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호기 안전재난과장은 "일할 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줄길 바라며, 특히 재해복구 사업현장에 우선 선택 집중해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우기 전 재해 복구사업을 100% 완료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사업 공적율을 제고해 여름 장마 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가세요"

무주군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가주기'에 돌입, 주민들의 환급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국제경정,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미등기, 납세자 착오 등의 이유로 올해 5월 7일 기준 총 685건 1,500여만 원의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무주군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찾아가주기' 기간(5.10.~5.28.)으로 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우편·문자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전광판과 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 환급금 신청은 무주군청 재무과 세입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3-320-2293) 또는 인터넷(wetax.go.kr),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도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정의 달 '무주 곤충박물관' 인기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 폭 가뭄만한 명소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곤충박물관은 자연생태 체험·학습·관광을 위해 설립된 1층 전문 박물관으로 반딧불이의 생태 디오라마를 비롯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내·외 희귀곤충표본들을 보유하고 있다. 연면적 4,450㎡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로 생태온실과 주위에 생태연못 등도 갖춰져 있다.

생태온실은 전북 최대 규모의 유리 온실로서 660㎡의 실내 온실에 200여 종 1만여주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화산분화구의 형태로 디자인 돼 있다.

지난 5일에도 어린이날 및 개관 기념일을 맞아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은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원을 담아 나비 날리기 체험을 진행,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내부는 온실 전체를 관람객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관람로가 조성돼 있다. 또 계류형 실개천(50m)과 웅덩이, 작은 폭포 등이 조성돼 있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온실 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생태온실에 살아있는 나비들이 나풀나풀 날아다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군정발전 유공자에 감사패 수여

진안군은 10일 군수실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문화 나눔과 이웃돕기 성금 후원을 실천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주)키즈엠 박형만 대표이사 ▲상전면 문화마을 안재복 개발위원장 ▲부기면 허경석 前주민자치위원장 ▲정천면자율방범대에 수여됐다.

박형만 대표이사는 진안군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 도서 1만권을 기부해 아동 독서 활성화에 기여 했고, 안재복 개발위원장은 상전

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 시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에 충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허경석 前부기면주민자치위원장은 2017년부터 매년 소득의 일부를 불우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고, 정천면자율방범대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프로젝트 1호 기부단체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실천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체육회, 특수법인 단체로 재탄생

설립 위한 준비위원회 통해 법인설립 창립총회 가져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특수법인 단체로 재탄생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체육회가 지난 7일 무주

군체육회 회의실에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체육회 법인설

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무주군체육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대한체육회 법인설립 매뉴얼 절차를 따라 진행했으며, 심의 안전으로는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사무소 설치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무주군체육회는 무주군에 법인 인가 신청 및 설립 등기 과정을 마치고 오는 6월 9일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지위를 가진 무주군체육회로 출발하게 된다.

송재호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무주군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출범해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만큼 무주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서가는 체육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체육회는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을 펼치며 생활 및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 오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체육, 여가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